

# 올 가을 16만 도자대장경 봉안

### 통도사... 노스님 수행거처 추진 등 승려복지도 추진

통도사(주지 원산)는 주지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6월 1일 원산 스님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뒤, 현재는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7월 초부터는 통도사의 오페수를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오페수관 매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 가을에는 또 산문에서 통도사까지 2.5km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도 일부 구간은 지중화가 돼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흉물처럼 돼있던 전선주들이 지하로 매립돼 통도사의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중화 작업은 전임 주지 때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부주지 지준 스님은 통도사 운영에 있어 화합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도사는 1300명 승려들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본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종단과 본사를 위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지준 스님은 또 "주지 스님도 방장 스님과 산중총림 원로 스님들을 모시고 통도사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수행도량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통도사는 상반기에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통도사 서운암 성파 스님은 1991년 식육만도자대장경 봉사를 시작해 2000년 9월경 완성했다. 도자대장경은 사부대중의 원

력을 모아 고려대장경의 원형을 그대로 도자기판에 조성하는 대작불사다. 통도사는 서운암 장경각에 식육만도자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올해 도자 대장경들을 이운해 가을 경 회향 할 계획이다. 장경각에 가지런히 보관된 도자 대장경에서는 남북 분단의 불행은 부처님의 높은 위신력으로 치유하고,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를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예년과 같이 많은 불자들이 참여했다. 5월 10일 설법전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선다회 회원들의 육법공양이 펼쳐졌고, 적멸보궁 현대레도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됐다. 이 밖에도 장엄등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이어졌다.

4월 7~ 9일까지는 매일 두 차례씩 법문을 듣는 형식으로 '보살계산림대법회'가 진행됐다. 통도사의 보살계산림법회는 경봉 선사에 의해 시작 됐으며 계의 중요성을 설파한 자장 율사의 수계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은 이런 정신을 되살리며 계율을 수지하고 더욱 신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화엄산림법회도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1월 3일 원만하게 회향했다. 2010년 11월 12일 입재해 53일간 구별여행을 떠났던 화엄산림법회는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사들을 모셔 (화엄경)의 주 내용을 강설했다. 회향일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모셔 회향법문을 청했다.

통도사는 30년 전통의 화엄산림법회를



통도사는 부처님오신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레를 봉행했다.

### 낮은 자세로 함께 하는 수행도량 화엄산림 법회 봉행 이어가며 경봉 선사 등 선지식 뜻이여 화합과 질서 중시하며 도약할 것

앞으로 깊이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화엄산림법회에 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전문 강사와 고승대덕을 초빙할 계획이다. 화엄경을 깊이 있게 설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 신도들이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 2번째로 열린 '제2회 울산 문화와 축제' 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6월

3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제는 기념식과 국제 차학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울산 문화와 축제'는 울산 BBS가 주최하고 있으나 통도사가 울산 BBS건립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주지 스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화와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도사는 하반기에는 승려복지 강화 차원에서 노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400~500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이곳에서 스님들은 거처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에만 집중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준 스님은 "상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극복하고 전임 주지의 업무를 이어가면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도 열린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불자와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지향”

### 통도사 부주지 지준 스님



“통도사가 사부대중은 물론이고 양산 시민들에게도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지향할 것입니다.”

지준 스님(사진)은 통도사의 하반기 계획을 설명하면서 '열린 통도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 자비도량을 수련회나 학술대회, 토론회 장소로 개방하고, 시민들이 통도사에서 삼림욕을 즐기거나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염된 공기와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수행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관광호텔을 인수해 조성할 '통도사 자비도량'은 사부대중이 수련회나 템플스테이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58개 객실이 마련돼 있으며 식당, 카페,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금도 통도사 귀빈이나 손님들이 내방할 경우 숙소로 사용된다. 또한 통도사와 3km 거리에 있어 '통도사 자비도량' 이용객들이 새벽 예불에 참여하기도 수월하다.

지준 스님은 "통도사 자비도량은 현 집행부가 애착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수련원으로 발전시켜 사부대중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고 말했다.

지준 스님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통도사와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와 더불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준 스님은 "부처님 말씀에 불법은 일심법이라 했으며 한 생각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한 생각이 잘못 일으키면 온 세계가 아비지옥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라며 "물질 만능 시대에 정신적 수행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근본적 질문을 던질 것을 주문했다.

지준 스님은 "현대의 불자들은 불자의 계율과 윤리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사찰과 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불보사찰

삼보사찰의 하나인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한 불보(佛寶)사찰이다. 해인사는 부처님의 말씀(法)인 팔만대장경을 간직하고 있는 법보(法寶)사찰, 송광사는 보조국사 이래 열여섯 명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는 제1 적멸보궁이기에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통도사 대웅전은 정자형(丁字形) 법당 사면에는 각각 다른 이름의 편액(匾額)이 걸려 있는데, 동쪽은 대웅전(大雄殿), 서쪽은 대방광전(大方廣殿), 남쪽은 금강계단(金剛戒壇), 북쪽은 적멸보궁(寂滅寶宮)이다.

통도사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 율사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통도사에 봉안된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는 자장 율사 스님이 당나라 유학 후 귀국길에 가져 온 것이다. 이때 스님은 당나라 황

제가 하사한 막대한 양의 비단과 채색옷감, 400권의 대장경, 불교용 깃발(幡幢), 꽃으로 장식된 가리개(花蓋) 등을 함께 가져와 통도사를 창건했다. 이처럼 통도사는 불사리와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대장경을 봉안한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도사는 창건 후 신라 · 고려시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의 억불과 임진왜란에도 중창을 통해 법등(法燈)을 이어왔다.

통도사의 창건 정신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에 있다. 현존하는 금강계단은 창건 이후 수차례 중수돼 창건 당시의 구조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삼국유사) 등의 기록을 살펴볼 때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금강계단 사방에는 불좌상을 비롯해 천인상, 신장상 등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수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박기범 기자



보물로 지정된 통도사 영산전 벽화

## 국내 유일의 다보탑 벽화

### 사찰 벽화의 백미 인정 보물 제1711호 지정

통도사 영산전 벽화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 제1711호로 4월 29일 지정됐다. 이로써 통도사는 22개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통도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1건, 보물 21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이번에 지정된 영산전 벽화는 한국 사찰 벽화로는 부석사 조사당벽화, 무위사 극락전 벽화에 이어 3번째다.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탱화를 봉안한 전각으로 300년 전에 건립됐다. 외벽에는 17점의 벽화가 남아 있으나 훼손이 심

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반면 내부는 52개 벽면에 벽화가 조성돼 있다.

통도사 영산전 벽화는 다른 사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내용을 벽화로 그렸다. 특히 (법화경), '견보탑품'에 의한 다보탑벽화는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예술성도 뛰어나 조선 후기 사찰 벽화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도 보물 지정에도 당시 이 점을 높게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 벽화는 분명한 소의경전과 예술적 작품성, 종교적 감수성, 시대성 등을 두루 갖춘 18세기 초 벽화의 기준

자료이자 이 시기 벽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내부벽화 52점(보존상태가 불량한 외벽 17점은 제외)은 영산전과 별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벽에 그려진 주제는 (법화경 견보탑품) 벽화와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의 경우 관련된 화제가 적혀 있고 목판의 실화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벽화의 도상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도사는 영산전 벽화 국가지정을 계기로 남은 벽화를 연차적으로 지정해 보존에 적극 힘을 계획한다. 박기범 기자

# 제3차 백양사 야단법석 수행결사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

황벽스님이 어느 날 대중한테 법문하였다.

“너희들 대중들은 하나같이 술짜꺼기나 먹고 진자 술을 마신듯 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行脚)간다면 어느 날에 깨닫겠느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안에는 선사(禪師)가 없음을 아느냐?” 그 때에 한 스님이 문득 말하였다. “여러 총림에서 대중을 지도하고 거느린 것은 무엇입니까?” 황벽스님이 말하였다.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스승이 없을 뿐이다.”

질그릇이나 공예품을 만들려 하더라도 스승을 찾아나서야 한다.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구하고 스승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방향하고 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으나 갈팡질팡이다. 무엇 때문인가?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경전(經典)인가,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語錄-법문)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해답은 야단법석에서 말해 줄 것이다.

### □ 법사스님과 주제

- 해남스님(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_ 율장에 담긴 수행결사
- 시몽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_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 용타스님(동사십 행복마을 이사장) \_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 도법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장) \_ 생명평화결과 나의 수행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_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 ▣ 일 시 : 2011년 8월 4일(목) 1시 ~ 8월 7일(일)
-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 동 참 비 : 20만원
-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 후 원 : 현대불교 신문사
- ▣ 접 수 처 : 백양사 신도국
- ▣ 계좌번호 : 농협 645117-51-014851 (예금주 : 백양사)
- ▣ 문 의 : 전화 061)392-0434 / 392-0100 팩스 061)392-208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 개인침구류 및 편의품을 준비해주시시오.



##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